



2014 제1회 국제상표심사국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과 장 김홍영	042-481-5379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사무관 김탁영	042-481-5349
 		2017년 11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26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FTA 시대, FTA 체결국의 상표출원 급증!

- 특허청, FTA 체결국의 對한국 상표출원 분석 -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전체 외국 상표출원 중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52개국(이하 FTA 체결국)의 출원비중은 '12년 75.7%에서 '13년 79.6%, '14년 81.2%, '15년 82.8%, '16년에는 83.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로는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미국이 연평균 6,382건을 출원하여 33.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중국 15.5%, 독일이 9.0%를 차지했다.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3%),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7.0%), 화장품·세제(6.3%) 등의 상품에 주로 출원하였다.
- FTA 체결국 중 발효 후에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분석되었다.
- 중국은 발효 직전해인 '14년 2,621건에서 발효 후 '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연평균 4,031건을 출원하여 53.8%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영국은 47.6%, 이탈리아 38.5%, 스위스 37.0%의 증가율을 보였다.

< 발효 전후 출원증가율 상위 4개국(단위 : 건수, %) >

구분	발효 직전년도(A)	발효 후 연평균*(B)	증가율(B/A)
중국	2,621	4,031	53.8
영국	746	1,101	47.6
이탈리아	690	956	38.5
스위스	735	1,007	37.0

* 중국은 2년간('15~'16), 영국·이탈리아는 6년간('11~'16), 스위스는 11년간('06~'16) 연평균 수치임

- 발효 후에 주로 출원한 상품을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2.8%), 화장품 및 세제(11.0%),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5%) 등이었고,
 - 영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0.6%),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0%), 광고업·기업관리업·도소매업(7.3%) 등으로 나타났다.
- 우리와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발효 후인 '12년부터 '16년까지 금융업 및 농·축산물 관련 분야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 금융·보험업의 경우, 발효 직전년도인 '11년 41건에서 발효 후인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60건을 출원하여 46.3% 급증했고, 보석·귀금속은 25.7%,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24.3% 증가하였다.

< 미국의 발효전후 출원증가율 상위 업종(단위 : 건수, %) >

구분	발효 직전년도(A)	발효 후 연평균('12~'16)(B)	증가율(B/A)
금융, 보험업	41	60	46.3
보석, 귀금속	136	171	25.7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692	860	24.3
문화예술, 사회교육 서비스업	937	1,039	10.9

- 이와 같이 FTA 발효 후에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우리와 FTA를 맺으면서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한국 내 상표출원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힘을 기울여 이들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붙임 FTA 체결국의 한국 내 상표출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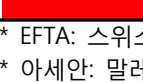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사무관 김탁영(☎ 042-481-5349)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FTA 체결국의 한국 내 상표출원 동향

붙임 1

우리나라와 체결·발효된 FTA 현황(15개 협정, 52개국)

2017년 1월 1일 기준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칠레	1999년 12월	2003년 2월	2004.4.1	o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2005년 8월	2006.3.2	o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2005년 1월	2005년 12월	2006.9.1	o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 (10개국)	2005년 2월	2006년 8월 (상품협정)	2007.6.1 (국가별 상이)	o 제2의 교역대상
 인도	2006년 3월	2009년 8월	2010.1.1	o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28개국)	2007년 5월	2010년 10월	2011.7.1	o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09년 3월	2011년 3월	2011.8.1	o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2007년 6월	2012.3.15	o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0년 4월	2012년 8월	2013.5.1	o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2014년 4월	2014.12.12	o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년 7월	2014년 9월	2015.1.1	o 북미선진시장
 중국	2012년 5월	2015년 6월	2015.12.20	o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09년 6월	2015년 3월	2015.12.20	o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년 9월	2015년 5월	2015.12.20	o 우리의 제4위 투자국
 콜롬비아	2009년 12월	2013년 2월	2016.07.15	o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 FTA 체결개국의 연도별 상표출원(2012~2016)

(단위: 건, %)

구분	'12	'13	'14	'15	'16	계	연평균 증가율
FTA 체결 52개국 출원 (구성비) (증가율)	16,536 (75.7)	19,090 (79.6)	18,368 (81.2)	21,040 (82.8)	20,325 (83.0)	95,359 (80.6)	5.3
FTA 미체결국 출원 (구성비) (증가율)	5,299 (24.3)	4,896 (20.4)	4,250 (18.8)	4,370 (17.2)	4,169 (17.0)	22,984 (19.4)	-5.8
전체 외국 출원 (구성비) (증가율)	21,835	23,986 (100.0)	22,618 (100.0)	25,410 (100.0)	24,494 (100.0)	118,343 (100.0)	2.9
		(9.9)	(-5.7)	(12.3)	(-3.6)		

注: 복수출원인의 경우는 제1출원인의 국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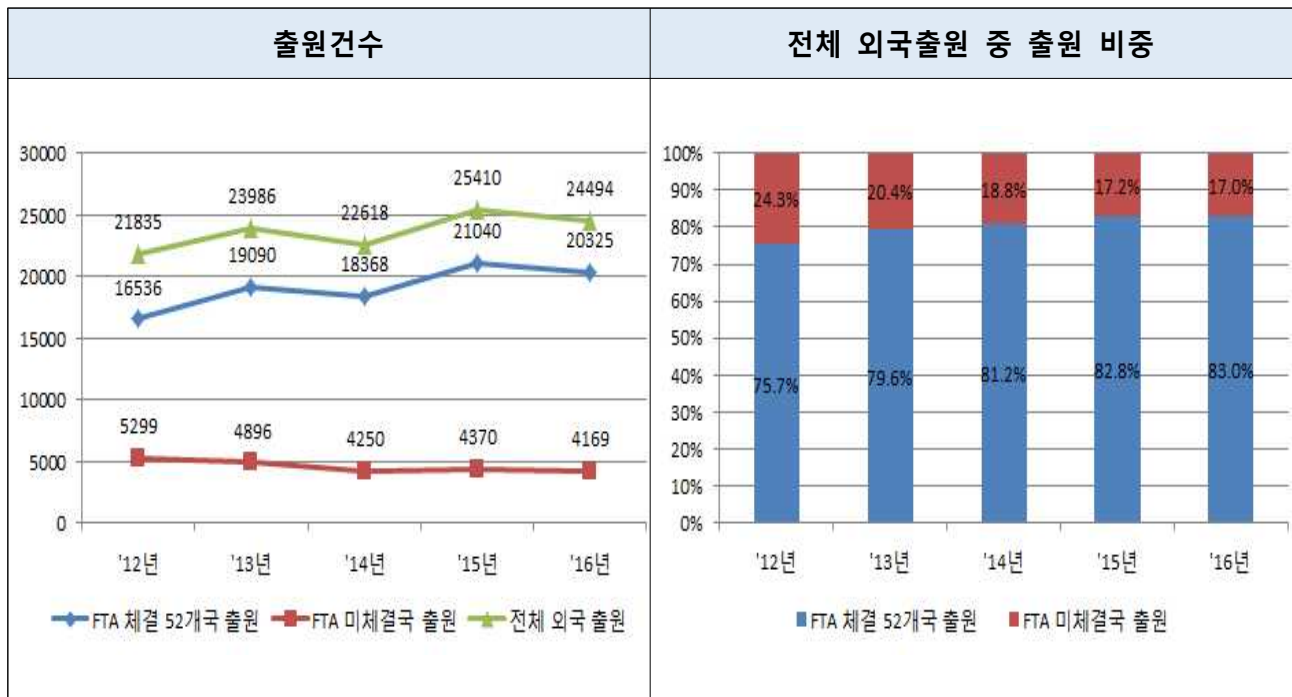
□ FTA 체결국 중 다출원 상위 10개국의 연도별 상표출원(2012~2016)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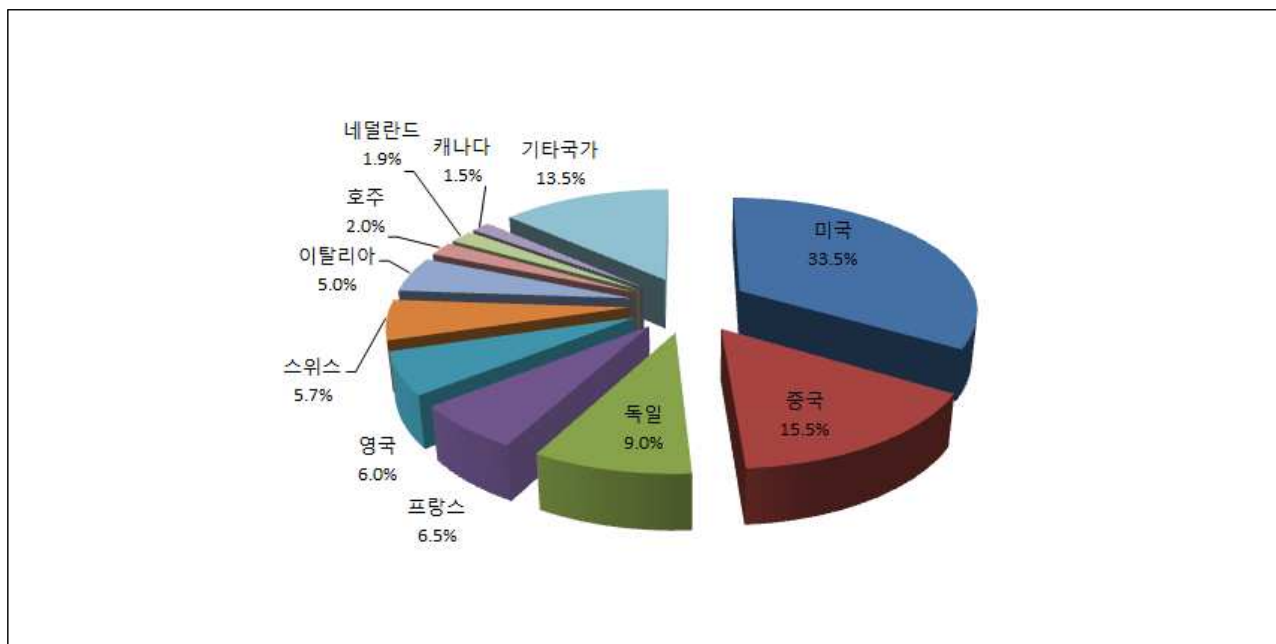
순위	국가	'12	'13	'14	'15	'16	계	구성비	연평균	FTA발효
1	미국 (증가율)	6,140	6,544 (6.6)	6,233 (-4.8)	6,850 (9.9)	6,142 (-10.3)	31,909	33.5	6,382 (0.0)	'12년3월
2	중국 (증가율)	1,756	2,345 (33.5)	2,621 (11.8)	3,492 (33.2)	4,569 (30.8)	14,783	15.5	2,957 (27.0)	'15년12월
3	독일 (증가율)	1,625	1,706 (5.0)	1,608 (-5.7)	1,854 (15.3)	1,769 (-4.6)	8,562	9.0	1,712 (2.1)	'11년7월
4	프랑스 (증가율)	1,225	1,276 (4.2)	1,156 (-9.4)	1,341 (16.0)	1,172 (-12.6)	6,170	6.5	1,234 (-1.1)	'11년7월
5	영국 (증가율)	898	1,299 (44.7)	1,191 (-8.3)	1,262 (6.0)	1,075 (-14.8)	5,725	6.0	1,145 (4.6)	'11년7월
6	스위스 (증가율)	1,013	1,252 (23.6)	1,157 (-7.6)	1,067 (-7.8)	934 (-12.5)	5,423	5.7	1,085 (-2.0)	'06년9월
7	이탈리아 (증가율)	862	1,032 (19.7)	987 (-4.4)	1,006 (1.9)	928 (-7.8)	4,815	5.0	963 (1.9)	'11년7월
8	호주 (증가율)	289	324 (12.1)	355 (9.6)	479 (34.9)	442 (-7.7)	1,889	2.0	378 (11.2)	'14년12월
9	네덜란드 (증가율)	313	376 (20.1)	353 (-6.1)	427 (21.0)	312 (-26.9)	1,781	1.9	356 (-0.1)	'11년7월'
10	캐나다 (증가율)	205	261 (27.3)	316 (21.1)	336 (6.3)	318 (-5.4)	1,436	1.5	287 (11.6)	'15년1월
	기타국가 (증가율)	2,210	2,675 (21.0)	2,391 (-10.6)	2,926 (22.4)	2,664 (-9.0)	12,866	13.5	2,573 (4.8)	
	FTA 체결 52개국 (증가율)	16,536	19,090 (15.4)	18,368 (-3.8)	21,040 (14.5)	20,325 (-3.4)	95,359	100.0	19,072 (5.3)	

注: 복수출원인의 경우는 제1출원인의 국적 기준

□ FTA 체결국의 연도별 상표출원 및 비중 추이(2012~2016)



□ FTA 체결국 상표출원 구성비(2012~2016)



붙임 3

FTA 체결국의 상위 20개 류별 상표출원 현황(2012~2016)

(단위: 건, %)

순위	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건수	구성비
1	9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기계기구,	20,072	11.3
2	25	의류, 신발 등 패션용품	12,297	7.0
3	3	화장품, 세제	11,222	6.3
4	35	광고업, 기업관리업, 도소매업	10,734	6.1
5	5	약제, 의료용품	9,904	5.6
6	42	디자인, 설계, 연구, IT	8,524	4.8
7	41	교육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7,217	4.1
8	18	가방, 가죽제품	6,538	3.7
9	7	기계, 모터, 엔진	5,354	3.0
10	30	커피, 차, 쌀, 곡물가공품	4,948	2.8
11	10	의료기기 및 용품, 위생용품	4,775	2.7
12	16	종이, 종이제품, 사무용품	4,773	2.7
13	28	오락/게임장치, 운동용품, 낚시용구	4,388	2.5
14	11	조명, 가열, 냉각, 조리, 환기장치	4,042	2.3
15	1	화학제품, 인조수지	3,924	2.2
16	14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시계	3,911	2.2
17	12	수송기계기구, 육상/공중/수상 이동장치	3,648	2.1
18	21	가정용/주방 용품, 화장용구, 유리/도자기제품	3,551	2.0
19	29	축산물, 해산물	3,335	1.9
19	43	요식업, 숙박업	3,335	1.9

注 1: 국제상품분류는 상품 35개류, 서비스업 11개류로 분류됨

2: 다류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는 류 건수 기준

붙임 4

FTA 발효 전후의 상표출원 동향

□ FTA 체결국 중 다출원 상위 10개국의 발효 전후 출원동향

(단위: 건, %)

연번	구분	발효 직전년도(A)	발효 후*(B)	증가율(B/A)	FTA발효
1	중국	2,621	4,031	53.8	'15년
2	영국	746	1,101	47.6	'11년
3	이탈리아	690	956	38.5	'11년
4	스위스	735	1,007	37.0	'06년
5	호주	324	454	28.0	'14년
6	독일	1,353	1,740	28.6	'11년
7	프랑스	1,073	1,246	16.1	'11년
8	네덜란드	320	353	10.4	'11년
9	미국	6,070	6,382	5.1	'12년
10	캐나다	316	327	3.5	'15년

注: 발효 후(B)는 국가별 FTA 발효년도부터 '16년까지의 연평균 출원건수임 ⇒ 중국 2년간('15~'16년), 영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네덜란드 6년간('11~'16년), 스위스 11년간('06~'16년), 호주 3년간('14~'16년), 미국 5년간('12~'16년), 캐나다 2년간('15~'16년)

□ 미국의 주요 분야별 FTA 발효 전후 출원동향

(단위: 건, %)

주요 분야	발효 직전년도(A)	발효 후('12~'16)(B)	증가율(B/A)
금융, 보험업	41	60	46.3
보석, 귀금속	136	171	25.7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692	860	24.3
문화예술, 사회교육 서비스업	937	1,039	10.9
영화, 음반 서비스	250	273	9.2
의약품	583	630	8.1
의료, 보건 서비스업	256	275	7.4
통신업	182	189	3.8
법무, 세무, 회계 서비스업	159	153	-3.7

注 1: 다류를 지정한 출원의 경우는 류 건수 기준

2: 발효 후(B)는 한미 FTA 발효년도('12년)부터 '16년까지의 연평균 출원건수

붙임 5

FTA 발효 이후 중국 및 영국의 류별 출원 현황

□ 중국의 FTA 발효 이후 상위 10개류별 출원 현황(2015~2016)

(단위: 건, %)

순위	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5	'16	계	구성비
1	9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기계기구	600	782	1,382	12.8
2	25	화장품, 세제	545	635	1,180	11.0
3	5	의류, 신발 등 패션용품	439	474	913	8.5
4	3	광고업, 기업관리업, 도소매업	404	432	836	7.8
5	35	요식업, 숙박업	192	208	400	3.7
6	42	가방, 가죽제품	160	209	369	3.4
7	41	수송기계기구, 육상/공중/수상 이동장치	126	240	366	3.4
8	10	기계, 모터, 엔진	152	181	333	3.1
9	28	커피, 차, 쌀, 곡물가공품	119	188	307	2.9
10	18	조명, 가열, 냉각, 조리, 환기장치	136	168	304	2.8

注 1: 국제상품분류는 상품 35개류, 서비스업 11개류로 분류됨

2: 다류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는 류 건수 기준

□ 영국의 FTA 발효 이후 상위 10개류별 출원 현황(2011~2016)

(단위: 건, %)

순위	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1	'12	'13	'14	'15	'16	계	구성비
1	9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기계기구	214	214	270	294	323	270	1,585	10.6
2	25	의류, 신발 등 패션용품	152	158	248	242	217	179	1,196	8.0
3	5	광고업, 기업관리업, 도소매업	130	133	214	194	268	160	1,099	7.3
4	3	화장품, 세제	97	116	181	161	185	159	899	6.0
5	35	교육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98	97	167	144	161	140	807	5.4
6	42	가방, 가죽제품	96	99	179	155	159	105	793	5.3
7	41	약제, 의료용품	85	102	130	148	120	89	674	4.5
8	10	종이, 종이제품, 사무용품	105	94	123	115	136	101	674	4.5
9	28	디자인, 설계, 연구	69	74	81	106	138	114	582	3.9
10	18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시계	72	48	90	90	83	57	440	2.9

注 1: 국제상품분류는 상품 35개류, 서비스업 11개류로 분류됨

2: 다류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는 류 건수 기준

붙임 6

FTA 체결국의 출원방식별 다출원인 순위(2012~2016)

□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 다출원인 현황(2012~2016)

(단위: 건)

순위	출원인	국적	'12	'13	'14	'15	'16	계
1	NOVARTIS AG	스위스	38	85	70	67	42	302
2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독일	56	49	22	52	25	204
3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45	46	35	37	10	173
4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	독일	15	21	15	29	64	144
5	Philip Morris Brands Sàrl	스위스	38	21	23	39	21	142
6	KONINKLIJKE PHILIPS N.V.	네덜란드	14	38	22	41	26	141
7	APPLE INC.	미국	15	40	21	23	36	135
8	Abercrombie & Fitch Europe Sagl	스위스	3	8	10	39	43	103
9	Merck KGaA	독일	32	14	11	19	25	101
10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스위스	12	70	12	2	1	97

* 마드리드 루트에 의한 국제출원: 출원인 국가에서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하나의 국제상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출원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3. 4. 10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

□ 파리루트 직접출원 방식 다출원인 현황(2012~2016)

(단위: 건)

순위	출원인	국적	'12	'13	'14	'15	'16	계
1	로레알	프랑스	82	92	61	55	131	421
2	존슨앤드존슨	미국	61	42	52	96	76	327
3	더프록터앤드갬블컴파니	미국	50	94	58	40	30	272
4	머크샤프앤드돔코포레이션	미국	28	41	49	72	49	239
5	일라이릴리앤드컴파니	미국	141	24	29	31	11	236
6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인크	미국	121	31	27	14	3	196
7	휴렛-팩커드디벨롭먼트컴퍼니,엘.피.	미국	63	61	50	12	7	193
8	애플인크.	미국	30	24	34	69	35	192
9	필립모리스브랜즈에스에이알엘	스위스	33	35	36	16	57	177
10	노파르티스아게	스위스	43	56	24	19	22	164

* 파리 루트에 의한 직접 출원: 외국의 출원인이 한국의 대리인을 통하여 한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